

식 순

- 1. 개 식
 - 1. 국민의례
 - 1. 청수봉전
 - 1. 심 고
 - 1. 주문3회병송
 - 1. 독립선언서 낭독
 - 1. 천덕송 합창 _ 공 락 가
 - 1. 기념 사
 - 1. 3·1절 노래 합창
 - 1. 만 세 삼 창
 - 1. 심 고
 - 1. 폐 식
-

기념행사

- 식후 문화행사
 - 거리행진 및 탑골공원 의암성사 동상참례
 - 3.1절 98주년기념 역사특강
 - 3.1올레길걷기 행사
 - 사진전시회등 부대행사
-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세계만방에 선언한지 제98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염원을 계승해서 민족통일과 생명평화, 후천개벽 세상을 향한 길을 앞장서서 개척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날의 3·1정신은 동학혁명과 갑진개혁운동으로 이어온 천도교 보국안민정신의 계승이며, 3.1독립선언은 의암성사의 영도 아래 10여 년을 준비해 온 자주독립운동의 결실입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자주독립과 근대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교육과 문화의 틀을 혁신하고 인재를 양성하셨으며, 제도를 정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완비하고 때를 기다리시던 중 천시와 지리가 조응하는 계기를 맞아 인화를 도모함으로써 3·1독립운동의 큰 길을 여셨습니다.

독립만세의 물결은 성난 파도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고, 나아가 해외로까지 전파되었으며, 마침내 중국 상해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여 근대적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 건국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3·1정신으로 하나 되어 임시정부의 지도 아래 독립항쟁을 계속하였으며, 8.15광복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후 분단이라는 크나큰 질곡 속에서도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으로, 문화입국을 지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와 더불어 지난 98년 동안 3·1정신이 나날이 망각되거나 왜곡되고, 또한 남과 북, 동과 서,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으로 분열되고 갈등하는 가운데 부정과 부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도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그리고 국내 국외 동포 여러분!

오늘 제98주년 3·1절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날처럼 하나 되어 선열들이 꿈꾸었던 나라, 천도교가 꿈꾸었던 포덕광제의 개벽 세상을 향해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3·1운동은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종교계는 물론 학생과

시민, 그리고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범민족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3·1정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세대 간, 종교간 갈등을 치유하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3·1운동은 의암성사께서 “비록 지금 당장 독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겨레의 가슴에 독립의 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준비되고 전개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8.15광복을 가져왔으며, 4.19혁명으로 이어져,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3·1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100주년을 계기로 제2의 3·1운동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3·1운동은 일찍이 의암성사께서 “지금의 세상은 한울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진단하시고 10여 년을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용단을 내린 후천개벽운동의 시대적 구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벽운동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공영, 나아가 생명평화세계를 구현하는 3·1정신실

천운동을 전개해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과 북의 동덕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3·1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몇 해 전부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미년의 3·1정신을 계승하여 종교계 전체와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전국의 독립운동 관련단체와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여 범국가적, 범민족적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3·1정신은 기미년 3·1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일원화, 대중화 그리고 비폭력화라는 원칙 아래 하나로 귀일시키고자 의암성사께서 보여주신 포용과 양보, 희생의 정신에 근원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3·1정신은 나날이 희석되어 가고, 곳곳에서 3·1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경향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1운동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3·1정신을 계승하여 후세들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3·1운동은 단순히 일제를 배격하는 배타적인 운동이 아니라 나와 너를 넘어 우리를 지향하며, 생명평화의 신세계를 지향하는 민족운동이자 개혁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3·1운동은 남북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운동, 한민족 고유사상과 문화로써 세계 인류의 공존공영에 이바지하는 생명평화운동으로 계속해 나아가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천도교단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지난해 말 중앙총부에서는 ‘대도중흥 비전 21’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포덕의 역량을 확충하고, 포덕의 환경을 조성하여 포덕광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문의 핵심인 모실 시 자의 뜻으로 내유신령-외유기화-각지불이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세상에 더욱 밝게 드러내기 위하여 금년에는 대포덕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성운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그날처럼 하나 되어, 민족과 세계의 새 역사적 지평을 개척해 나아갈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58(2017)년 3월 1일
천도교 교령 이정희 심고

독립선언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 할 것이다.

넓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는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

화에 이바지하고 보탬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 전부터의 억울을 떨쳐 퍼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놀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체모와 도리를 떨치고 뺏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하매 어느 강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을 꺾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 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어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움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굴대(軸)인 4억만 지나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워함과 시새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써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 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공약 3장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이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 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 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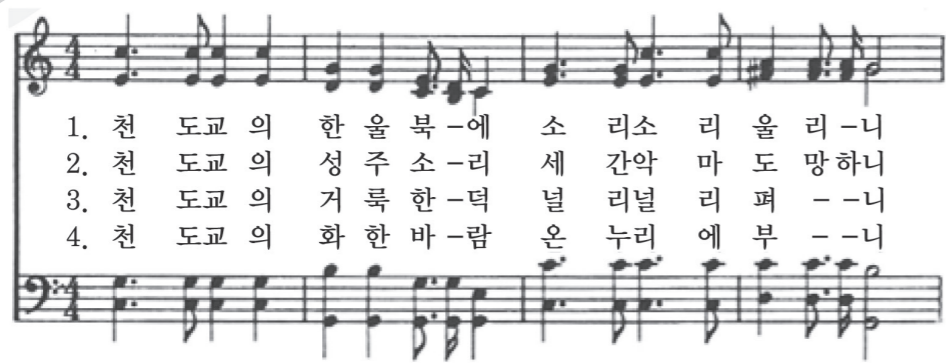
1.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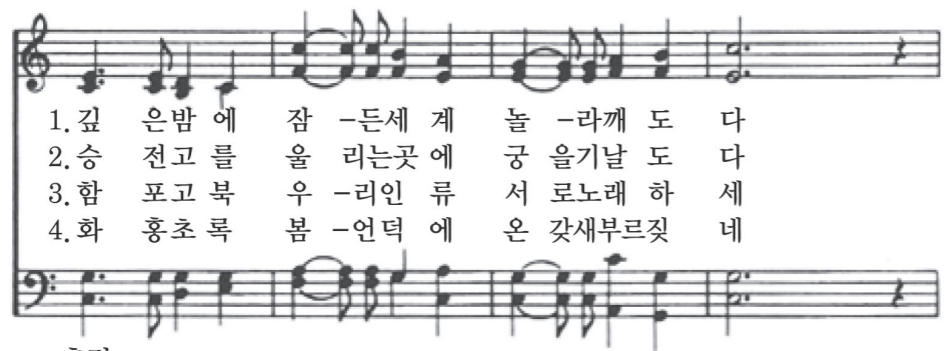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공락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에 소 리 소 리 울 리-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리 세 간악 마 도 망하니
 3. 천 도교 의 거 룩 한-덕 널 리 널 리 펴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람 온 누리 에 부 -니



1. 깊 은 밤 에 잠 -든 세 계 놀 -라 깨 도 다
 2. 승 전 고 를 울 리는 곳 에 궁 을 기 날 도 다
 3. 함 포 고 북 우 -리 인 류 서 로 노래 하 세
 4. 화 흥 초 록 봄 - 언 덕 에 온 갓 새 부르 짓 네

후렴



든 도 보 도 못 -한 이 - 풍 류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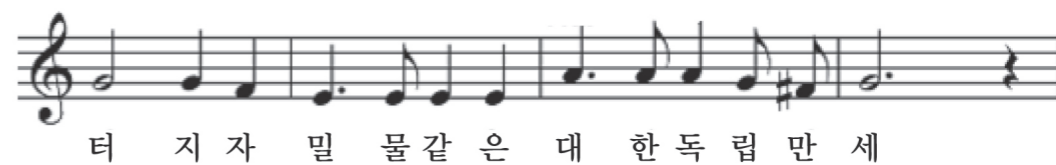


한 울 나 라 한 울 백 성 같 이 즐 기 세

삼일절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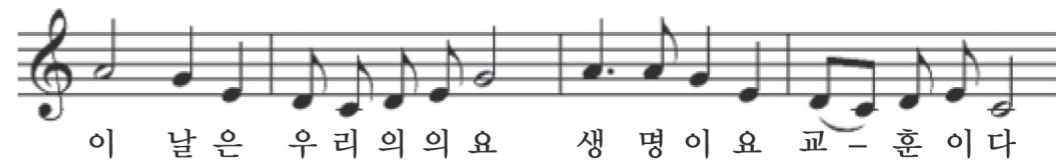
기 미 년 삼 월 일 일 정 -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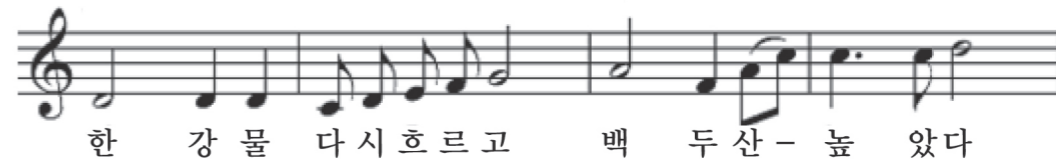
터 지 자 밀 물 같 은 대 한 독 립 만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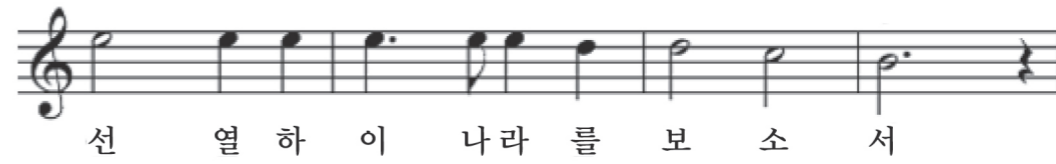
태 극 기 곳 곳 마 다 삼 천 만 이 하 나 로



이 날 은 우리 의 의 요 생 명 이 요 교 - 훈 이 다



한 강 물 다 시 흐 르 고 백 두 산 - 높 았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야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

